

한화L&C, 김창범 공동대표 선임

한화,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세대교체 ... 한화케미칼 부사장 최금암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대표 등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화케미칼 최금암 경영기획실 전략팀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경영기획실장에, 김종서 PE사업기획팀장은 상무보로 승진하면서 일본법인장에 각각 선임됐다.

한화L&C 대표이사에는 김창범 공동대표, 한컴 대표이사(경영기획실 홍보팀장 및 브랜드관리총괄 겸직)에는 장일형 경영기획실 홍보팀장, 미주법인장에는 이상묵 석유화학원료팀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금융부문에서도 임원인사가 이루어졌다.

한화그룹은 과감한 세대교체와 사업구조조정 가속화를 위해 이전보다 평균 4-5세 젊은 인재를 주요 계열사 대표와 그룹경영기획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하고 있는 태양광, 바이오 사업 등 신 성장동력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맡은 (주)한화 무역부문과 미주·일본법인장을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신년 하례식에서 “격변하는 내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면서 “2010년 그룹의 어려웠던 환경을 새로운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개월간 비자금 의혹 수사로 인사를 미루어왔던 한화그룹은 이번에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한데 이어 조만간 계열사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14>